디지털 중독 예방, 불교명상이 해답

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 9월 18일 3대 종교포럼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럼에 앞서 3대종교 대표자들이 디지털 중독 예방에 나서자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해 3대 종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는 9월 18일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종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불교상담개발원과 교회정보기술연구원, 가톨릭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등에서 참여해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각 종교별 대응 현황과 사업 진행방향을 공유했다.

불교, 명상으로 과의존 극복

이날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명상을 통한 디지털 과의존 극복을 강조했다. 스님은 "농경시대에 근간했던 불교는 4차산업 시대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어버릴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최근 명상을 통해 인간 존엄성 회복과 자아실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과의존은 낮은 자존감과 소외감, 외로움 등으로 발생한다. 부처님은 그러한 느낌의 생성과 소멸을 여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해탈한다고 하셨다"며 불교명상의 효과를 설명했다.

스님은 "명상의 과학화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고 대중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 정보화진흥원 등 국가지원 체계와 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사업단 등 종단 체계, 전국의 사찰과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대응과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번째 불교계 발표자로 나선 황선미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은 불교계 과의존 방지사업 현황과 개선점을 지적했다.

황 사무국장은 특히 "개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관심과 예방사업 필요성 인식은 높지만 사찰 관심과 인식은 부족하다. 또 불자인구 고령화와 유아동 청소년의 감소로 사업수행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사무국장은 "과의존 예방교육과 강사에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는 증가하고 있다. 향후 사업 진행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황 사무국장은 향후 사업 추진방향으로 △기초조사를 통한 사업대상 및 방향 설립 △불교 가르침에 기반한 과의존 이론 정립 △명상 활용한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과의존 분야 전문가 확보 및 예방강사 양성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기관 유치 등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웃종교계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사업 현황도 공개됐다.

이웃종교는 디지털 과의존 예방 어떻게 하나?

먼저 가톨릭의 경우 디지털 금식을 실시하고 매주 스마트폰 없이 성당오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음이 소개됐다.

오현희 가톨릭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성가정상담팀장은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부모 교육 등과 함께 성당에서 사순수첩 실천표에 디지털 금식 실천여부를 표시하고 불편함을 통해 영성을 느끼는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주일학교 초등3학년과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1박2일과 함께 매주 스마트폰 없이 성당오기 등도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은 전국 15개 교구에서 스마트쉼 운동으로 꾸르실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3박 4일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다.

이와 함께 가톨릭계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도 교육하고 있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기도체험에 대한 질문과 숙제, 이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페이스북으로 기도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 청소년 축제에서 생명존중 활동 사진을 담아 SNS에서 공유하고 주보를 QR코드를 읽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종무원 권익보호' 조계종 노조 출범

종무기관 · 산하단체 · 본말사 포함 산별노조

조계종 종무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산별노조가 출범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는 9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현재 조계종지부는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종무원 40여 명을 중심으로 조직됐지만 교구본말사 종무원 등 종단 내 모든 종무원을 포함하는 산별노조다.

40명 중심 우선 조직, 점차 확대
"조직문화 개선 · 고용안정 실현"

조계종지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종무원이자 노동자다. 개혁불사 초심으로 종무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했으나 우리의 자긍심은 순응적인 문화, 줄서기 문화 속에 무너져 버린 지 오래"라며 "애종심과 쇄신은 누군가에게 증명이라도 해야 할 듯 거리에서 사찰에서 우리 스스로를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용어가 됐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계종지부는 이어 "우리는 노동조합을 출범하며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일터인 종단과 사찰이 세상에 든든한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직문화 개선과 종무원 인권 및 권익향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 직장 내 성평등, 근로조건 개선 △불자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종단 △참된 민주주의 구현 위한 사회적 연대 실현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지부는 또한 중앙종무기관보다 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로부터 종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심원섭 지부장은 "산하기관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된 사례, 일방적인 업무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떠나는 사례가 많다"면서 "종무원들 내에서도 우리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다. 건전한 중간지대의 목소리가 표출되지 못한 채 한쪽에 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지부는 또한 노조 출범이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임을 전제하면서 향후 전면적으로 가입원서를 받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댄스 · 기타연주, 이젠 염불도 새롭게"

조계종 교육원 제2회 학인염불시연대회 성료

악기연주, 댄스 접목한 염불 눈길
응원막대 활용해 조직적 응원펼쳐
법주사 법륜 · 동학사 현태 스님
사미십명 · 봉청금강팀 대상 영예

2014년 첫 선을 보이며 불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가 9월 19일 두 번째로 열렸다. 4년 만에 열린 경연인만큼 학인 스님들은 악기연주와 댄스 등을 접목한 다채로운 염불을 선보여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이 9월 19일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를 개최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은 500여 대중들로 가득찼다. 전국에서 응원 온 각 사찰 학인 스님들과 신도들은 저마다 피켓과 응원도구를 들고 응원전을 펼쳤다.

올해 대회는 전통염불과 창작염불 2개 분야에서 개인부와 단체부로 나뉘어 총 4개분야로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예선에서는 15개 사찰에서 개인 25명, 단체 8개팀의 총 115명이 참가 했으며 이를 통과한 개인 12명, 단체 8개팀이 본선에서 솜씨를 뽐냈다.

이날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스포츠댄스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접목한 법주사 승가대학 2학년 정륜 스님의 무대였다.

처음보는 댄스와 염불의 만남에 대중들 사이에서 웃음도 터져 나왔지만 큰 박수와 함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개인부분 대상을 수상한 정륜 스님은 "출가전 스포츠댄스를 익혔다. 원래 스포츠 댄스는 커플이 함께하는 것이지만 대중들과 함께 춘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맞췄다. 염불의 가락 속에는 고유의 흥이 있어 이를 스포츠댄스와 접목해 전하고 싶었다"며 "이제는 수행에 전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염불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개인 12명, 단체 8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이밖에 통기타 반주와 함께 경허선사 참선곡을 선보인 운문사 진정 스님 등 기타연주팀이 많았다. 또 특별시연에서 지난 1회대회 우승자 보문 스님은 하모니카 연주와 관음보살정근을 접목해 선보이기도 했다.

단체팀 경연에서는 스님들의 염불과 함께 조직적인 응원이 돋보였다. 운문사와 청암사, 동국대 불교대학 등에서는 머리띠 등을 두르고 응원막대 등을 활용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단체팀 대상은 운문사 봉청 금강팀과 해인사 사미십명팀, 개인 대상은 법주사 정륜 스님과 동학사 현태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전국 방방곡곡 '산사' 문화재 만나보자

문화재청, 산사 34곳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7곳의 산사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전통산사 내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19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산사 문화재' 34선 △'문화재야행' 27선 △'생생문화재' 132선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97선 등 총 290선을 선정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들은 지역 소재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424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290선의 사업이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 공연 · 답사 등의 고품격 산사 문화프로그램이다.

총 59건의 신청 중 34건이 선정됐으며, △논산 쌍계사의 '쌍계 마바시(마음을 바꾸는 시간)', △밀양 표충사의 '산사에 울려 퍼지는 호국의 메아리', △남원 실상사의 '실상사, 천년의 향기', △순천 송광사 · 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 전국 산사가 가진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사 7곳(공주 마곡사, 보은 법주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과 대구 동화사, 인천 용궁사, 춘천 청평사, 정선 정암사, 영동 영국사, 서산 일락사 등 6개 산사를 추가로 선정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
Gaya filial duty(Hyo) culture festival
가야왕도 500년
찬란한 가야문화 2000년 시민과 함께하는
일시 2018년 10월 5일 금 6일 토 7일 일
장소 김해 수릉원
김수로왕, 허왕후, 장유화상 추모 다례재
부모은중경 서각. 인경체험 및 전시
가야문화중흥기원. 금강경독송 1080배
김해시민과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점심대접)
특별출연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주제 : 가야」
국악명창 김영임 개막식 축하공연
주요행사
김준호, 손심심 孝콘서트
가야청소년 국악경연대회
가야청소년 백일장 대회
가야 '극' 페스티벌
아시아6개국 전통음식 축제
아시아 전통의상 퍼레이드
체험행사
장군차, 대용차, 꽃차 시음
붓글씨, 달마도 그리기
동자승, 단청 그리기
몸펴기 생활운동
세계의상 체험
주최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주관 김해시불교연합회, 이웃을생각하는모임, 사단법인 가야문화예술인연합회
후원 경상남도, 김해시, 통도사, 범어사, 성주사, 은하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재단법인 은암문화재단, 영남매일·YN뉴스, BTN, 현대불교